주가	환율	금리
-13.75	-3.70	-0.02
1,376.98 (코스피지수)	922.40원 (원/달러)	4.76%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7.46	(-12.57)
다우(11일)	12,328.48	(+20.99)
나스닥(11일)	2,442.86	(+5.50)
닛케이	16,637.78	(+109.79)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88엔	(-0.21)
유로 달러 환율	1.3256달러	(-0.51)
3년만기 회사채	5.12%	(-0.02)
콜금리	4.45%	(보합)

수완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첫 삽'

1,874억 투입 18일 열병합발전소 착공

자족형 전력 공급… 난방비 30% 절감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신개념 에너지 시설로 관심을 모았던 수완지구가 집단에너지사업 첫 삽질을 하게 됨으로써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됐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열원(熱源)부지에서 참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 사업 기공식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와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개념 에너지 시설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최초의 사업이다.

현지법인은 경남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송촌, 광주시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총 1천87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간당 10만9천㎾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 2기와 1억㎉급 열전용 보일러, 2만5천㎥급 축열조(열 저장시설) 등이 건설된다.

우선 2008년 3월까지 변전소를 건립해 한전에 전기를 공급(부분 준공)한 뒤, 8월에 열병합 발전을 통한 전기와 난방을 제공할 계획이다. 집단 에너지 주 공급대상은 수완지구(140만평)와 하남2지구(30만평)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자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130명)을 고용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법인 설립에 따른 시세 7억3천600만원과 연간 1억5천만원의 구세 등 지방세 수입증대 효과도 크다.

이 사업으로 연료비(도시가스 기준)가 기존 난방 방식과 비교할 경우 연간 351억원(30%)나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도 기존 난방 방식 대비 연간 4만5천t(42%)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참여키로 했던 에너지 전문업체인 D그룹과 K공제회 등이 사업을 철회했으나 공기업과 광주시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신에너지육성정책의 기반 조성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광주 이전시 지역 에너지 분야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무항생제 돼지 '해두루' 출시

나주 등 전남지역 10개 축협과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무항생제 돼지고기인 전남 돼지광역브랜드 '해두루'<사진>가 본격 출시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양돈광역브랜드사업단(단장 나주축협 전준화 조합장)은 오는 15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지역축협장 및 양돈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돼지광역브랜드 명명식 및 출범식'을 개최한다.

'해두루'란 이름은 햇볕과 자연의 기운이 두루두루 스며든 순수하고 청정한 전남의 먹을거리를 상징하는 뜻에서 '해'와 '두루'를 합해 지어졌다.

'해두루' 돼지광역브랜드는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을 목표로 선도 브랜드와 차별화를 강구해 나가며 참여규모도 현재 41호 3만1천두에서 오는 2008년에는 100호 15만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단은 사업 참여축협의 하나로마트에서 먼저 판매한뒤 서울 등 대도시까지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금호고속 '안전경영대상' 수상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는 12일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2006 안전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또 부문별 대상업체로는 ▲제조업 대기업 부문=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제조업 중소기업부문=호성케맥스㈜ 여수공장 ▲건설업 건축부문=진흥기업㈜ 전주 효자동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현장 ▲건설업 토목부문=㈜한진중공업건설 부산~울산고속도로 2공구 현장 ▲전기가스수도업 부문=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가 선정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삼성화재 광주콜센터 개소 12일 광주 금호생명빌딩 6층에서 열린 삼성화재 광주콜센터 개소식 참석자들이 상담원의 상담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채동석 삼성전자 부사장, 최용수 금감원 광주지원장, 박광태 광주시장, 장원균 애니카서비스 대표. 삼성화재는 50석 규모로 문을 연 광주콜센터를 2008년까지 360석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표전화는 1588-5114.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백화점 바겐세일 장사 잘했네

광주지역 매출 신장율 지난해보다 7~18% 늘어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겨울 정기세일 매출 신장율이 지난해 대비 두자릿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겨울 정기 바겐세일을 실시한 결과 매출 신장율이 지난해에 비해 최소 7%에서 최대 18%에 달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겨울 세일에 비해 매출이 18% 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여성복과 신사복 매출이 각각 23%와 27% 증가하는 등 의류가 매출 신장세를 주도했다. 또 구두 매출도 세일 실시와 새 트렌드 부츠 출시의 영향으로 매출이 21% 늘었고 명품 매출도 34% 증가했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7월 개점한 이마트와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객단가(고객 1인당 구매가격)도 전년대비 22%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의류매출에 힘입어 10% 중반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매출 신장세는 방한의류(50%)와 남성의류(20%), 여성의류(10%) 등 의류가 주도했으며 패션잡화도 가격인하를 실시한 명품매장의 영향으로 30%대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15~20% 신장율을 보인 의류분야로 인해 매출이 전년대비 7% 늘었다. 현대백화점측은 경기침체와 소비계층의 양극화로 남성의류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지역 백화점들의 겨울 정기세일 매출 신장세는 지난해 폭설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데 따른 상대적 실적호전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쌀 건드리면 FTA 깨겠다"

농림부 "협상에서 완전 제외돼야"

농림부는 12일 "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완전히 예외가 돼야 한다"며 "미국이 쌀을 건드린다면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FTA 협상과는 별도로 조만간 쇠고기 검역기준에 관한 기술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이날 한·미FTA 5차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은 어떤 품목이든 예외없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쌀은 완전히 예외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내년 1월 열리는 6차 협상에 앞서 고위급 회의를 통해 쌀과 쇠고기 등 이견이 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검역문제와 관련 배 국장은 "FTA 협상에서는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든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것이며 한국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쇠고기는 미국의 최대 관심품목으로 지난 2003년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미국이 쇠고기 수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착·발신 인증 전면 시행

내년부터 '복제폰' 피해 차단

내년 1월부터 불법 복제폰 피해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착·발신 인증이 전면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내장 비밀정보로 통화시 인증절차를 거쳐 불법복제를 사전 차단하는 착·발신 인증제 도입을 마무리,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키(A-Key)가 내장된 휴대전화는 통화시마다 인증정보를 변경해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법복제가 불가능해졌으며, 복제가 됐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통화시 인증실패 안내문구가 자동 표시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의 통신망 접속정보를 분석, 비정상적인 이용패턴을 복제 의심사례로 검출해내는 불법복제 탐지시스템(FMS : Fraud Management System)의 성능을 개선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